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02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11월 8일(음력 9월 18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꼭! 이 마음도리를 공부해서 자성 발견해야

우리가 사는 데는 한 달, 한 달이 있고 날이 있지만 여러분과 같이 앉았던 때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합니다. 사람은 항상 낱자를 따지고 월을 따지고 년을 따지고 하지만, 불바퀴는 시공이 없이 항상 여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바퀴라는 자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나가는 것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나 깨나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화두 참구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한 것 자체가 화두입니다. 화두가 따로 있어서 내가 화두를 탄 사람한테 받아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복하면 부처 중생을 다 집어삼키는 공부라고 했겠습니까.

그대로 여여한데 그럼 왜 이런 공부를 해야만 하느냐? 이런 게 또 있겠죠. 하여튼 여러분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그 사실, 또 나 자체가 화두라는 거, 그리고 와선이나 입선이나 행선이나 좌선이나 이것을 한데 합친 것이 참선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語·動靜)'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해 두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들하십시오.

▲질문자1(남): 항상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만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점 송구스럽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신 질문 요지를 수합하여 제가 대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불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에게 본래부터 불성이 있었다면 무슨 까닭으로 그 불성이 온갖 무명(無明)을 일으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태초부터 무명이 있었다면 중생에게 어찌 불성이 있다고 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불성이라는 것은요,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성이라면 그 생명의 근본은 전체에 같이 돌아가는 평등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이 세상이 직결이 돼 있고, 세상은 가설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은 그렇게 같이 돌아가지만 그 외에 영혼이라는 자체가, 의식 자체가 천차만별로 돌아가입니다.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중생(下衆生)은 나쁘고 좋은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집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쁘고 좋은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몸 안에 들은 중생들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다스리면서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불성이 본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느냐고 하지만 그것이 영혼 자체가 살아나온 관습에 의해서, 주어진 업에 따라서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서 자기 자성(自性)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과거에 살던 자기 조상과 현실에 사는 자기가, 즉 말하자면 같이 합류화돼서 작용을 해야만 진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자1(남):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에게 맡겨라, 맡겨라 하시는데,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온갖 망령된 장난일 뿐이라고 이해됩니다. 맡긴다는 생각도 망념의 한 가지일 것인데, 망념 사랑으로 주인공에게 맡겨서 무엇을 어떻게 뒤야 할 것인지 저희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여러분은 도인이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허허허... 첫째도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두 번째도 돌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세 번째도 돌이 아닌 도리에서 돌이 아닌 나뭇을 알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명을 벗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몸 안에 들은 모든 의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 상대성의 끈에, 인과의 끈에 의해서 자주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첫째는 주인공이라는 중심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지 중심을 꿰어야만 바퀴가 굴러가듯이 말입니다. 차도 중심이 있으니까 바퀴가 굴러가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중심이 없으면 목석이죠.

그래서 가는 것만 알았지 오는 것을 모르니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소리도 제대로 못 불러 봤습니다. 어떻게 엄청난... 그래서 (가슴을 가리키시며) 여기에다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죽고 사는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나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인데 늙고 젊고 가따로 있겠느냐. 어차피 이렇게 갈 거라면 차라리 그냥 가는 게 좋겠지?' 하고선 뭐, 죽고 사는 건 염두에 두지도 않고요.

나의 집을 살다 보니까 고생이 돼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어도 아빠를 부르고 울었고, 고독해도 아빠를 부르고 울었죠. 그때는 물통에 물을 길어서 먹었습니다. 일 전을 가지고 물을 사면 고련적 요만큼씩만 표를 주었는데, 표 하나씩을 가지고 한 지게, 두 지게 요렇게 했습니다.

리석은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공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또 밥을 굶는 때가 많았습니다. 아주 뭐 밥 굶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곳간에 가서 보이지 않게 훔쳐다가 어떡하면 저 사람네들에게 줄 수 있을까 하고 항상 내면에 맡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죠. 허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참, 내내 그렇게 돼서 8·15 해방이 되기 전이니까 열여덟 살이 됐습니다. 그전에도 항상 감응은 왔지만 정말 열여덟 살에, 지금으로 치면 깨우쳤다. 그러지만 그때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나'가 현연히,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우러나왔고, 그 아빠는 반드시 나를 리드해 줬습니다. 항상 그저 잘못된 거면 잘못하게 다스려 주고 또 이끌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

그리고 난 뒤에 무척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하면 '천(天은 지(地)를 다스리면서 산하대지의 일체 만물을 다 기르는데, 제가금 천차만별로 마음에 따라서 저렇게 짓고,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하니 참 너무도 기가 막히구나! 나는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인데, 왜 저자기도 저런가?' 하는 생각에서,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하여튼 무척 울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것처럼 또 심상심상 웃고 다녔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면 나와서 가는 길만 알았지 오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지, 가는 길을 알고 오는 길을 안다면, 그게 양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좋은 겁니다. 싱그럽고, 그렇게 고생을 해도 고생하는 것 같지를 않았습다. 그래서 입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아홉 살, 8·15 해방되고 나서 입산을 해서 스물세 살, 즉 말하자면 6·25 나전 그해 3월달에 계회를 받았죠.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말을 영 못하다가 이 근래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허...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침 명심하겠습니다.

▲질문자2(남): 큰스님, 저는 2년 전에 큰스님을 뵈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진솔하게 그냥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이 무엇인가 하는 의정이 나서 여쭙 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큰스님을 친견할 당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다리가 가늘어서 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버스에 오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려는 그런 상황에서 큰스님을 뵈게 됐는데, 그 인연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큰스님의 가르침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꾸준히 계속 나오면서 도반들하고 이렇게 꼭 공부하다 보니까, 작은 변화지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궁금한 거는 여쭙 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직장에서 진급을 목표로 해서 늘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족과 저와, 또는 저와 인연 닿는 사람들을 제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나쁘게 얘기해서 제물로, 심지어 제 와이프와 아이들까지 제 목표를 달성하는 구실로 다 이용하였는데, 어느 날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는데, 꿈속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울다가 깨 보니 꿈에서 울었는데도 베갯잇이 전부 젖어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머리끝부터 모공이 송연해지면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일어나 보니, 옆에 와이프도 자고 있고 아이들 방에 가 보니 아이들도 자고 있는데 그날 이후로는 '참! 부질없는 짓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와이프한테 그렇게 잘못했던 것이 안쓰럽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물고기를 놔 주는 것만 방생이 아니다. 내 목표 달성하는 데 제물로 이용한 그 부분을 놓아 주자.'고 마음먹고 되었고 그때부터는 역시 나 대신 아파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뗐, 특별히 목표를 세워서 출세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마저도 자연스럽게 뇌지고, 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어떻게 봐야 한다는 그런 욕심도 그냥 자기 업대로 인연 따라 살겠지 하고 뇌지고 와이

30면으로 계속

오는 것과 가는 것을 한데 합류시켜서 작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모든 것은 중심을 세워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하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하나입니다. 이 한바퀴 주인공이라는 건 내면에서도 한마음이요, 모든 내면세계의 체포 하나하나의 생명들도 '나' 아님이 없습니다. 외부에서도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돌아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주인공!' 하고 세워야 그 끈을 잡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잡고 실행도 할 수 있고 그걸 잡고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수련하는 것은 맡겨 놓는 작업입니다. 숙명들이 컴퓨터라면 거기에 입력이 돼서 작업 선업이 자주 나오는 것인데, 거기다가 되맡겨 놓아야만 앞서의 입력된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거기가 놓으면 앞서의 것이 없어지고, 또 놓으면 또 없어지고, 또 놓고 이래야만 내 마음이 스스로 밝혀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질문자1(남): 여쭙기 황송하오나 한 가지 더 여쭙 보겠습니다. 큰스님께서 발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발심하셨는지요. 그리고 뒤야 이루셨을 때의 체험은 어떠하셨는지요.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들 공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큰스님: 아! 질문도 참 묘하게 하시네요. 허허... (대중 웃음) 저는요, 9살에 남의 집에 가게

그런데 여덟 지계를 저야만 그 집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홉 살, 열 살, 열한 살이 되기까지 그것을 저 낳았습니다. 그것만 저 나쁜 게 아닙니다. 엄마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애를 업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할 수 없는 문체가 벌어지곤 했죠. 나는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냥 업고 가고, 온통 아단을 하고 울면 같이 울고, 그렇게 아빠에게 맡기고 했는데, 그 애를 주려고 과거를 사 놓은 걸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 사정은 일일이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런 것을 드러내 보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리만 붙들고 울었을 뿐이죠. 이걸 얘기를 하러니까 그 얘길 안 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그저 모든 일체를 다 거기에 맡겨 놓고 했죠. 물을 길으러 가도 신발이나 좋았습니까, 어디? 계다짜이죠. 또 계다짜이 닳아서 못 신으면 짚신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물이 다 얼질러 저서 웃도 다 짓고 그래서 귀퉁이도 무척 쥐어 박혔습니다. 그렇게 한 열흘이 지나니까 한 모금도 떨어뜨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저 바깥에 나가서 따뜻한 물도 없이 가져가기를 빨아서 전부 철망에다 널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손이 얼어 부풀어서 그냥 뭐, 막 아파서 죽겠죠. 시린 게 아니라 아파요. 아픈 거를 꼭꼭 쥐고서 거기가 맡겼죠. 그저 그때서부터 거기가 맡기는 것을 내내 하면서, 밤이면 밤대로 나 같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 나같은 어려운 사람, 어

떻게 말씀하더군요. '내가 일할 때는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일을 안 할 때는 내가 나와 하나가 되고,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子)가 부(父) 앞으로 가면 부와 하나가 되고, 부가 자 앞으로 오면 자와 하나가 되느냐. 무슨 까닭이냐?' 그때에 생각하기는 체가 없는 마음이나가, 마음이라는 것은 이름이지 그 결과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부와 자는 돌이 아니다. 그건 체가 없어서 그냥 이 몸도 움쭉거리게 자주 이끌어 주면서, 그냥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물로는 안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알고 갔는데 그 후에 날이 펴 주었습니다. 날이 펴 주니까 '여름이 좋은 거냐, 겨울이 좋은 거냐? 겨울이 좋으냐, 여름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여름과 겨울이, 사계절이 어떻게 둘이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사람이 춥다 덥다 하는 거지 진리라는 건 춥다 덥다 없지 않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천지가 한데 합치는 거 같았습니다. 산하대지가 일제히 전부 손끝을 한데 모으고 (합장해 보이시며) 그냥 전부 그러는 게 보이면서, 천지가 그냥 하나로 뭉쳐져 버리면서 차츰 차츰 차츰 작아지면서, 불덩어리가 작아지면서 그냥 불덩어리 구슬이 돼서 그냥 '팡' 하고 일어나는데 그때에 나왔습니다.



그림 · 최주현

“
지금 현실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근본에다 되맡겨 놓아야
내 마음이 스스로 밝혀져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
”

“
과거에 살던 자기 조상과
현실에 사는 자기가
같이 합류화돼서 작용을 해야만
진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